

政府는 國家發展을 위해

圖書館을 育成해야 한다.

今年 5月 國務總理室 行政改革委員會에서 “圖書館 行政 改善을 위한 調查報告”를 作成하여 이를 關係部 處에 指示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報告書는 道赫월보 6月號에 게재되었는데 그 內容을 보면, 全國 文獻情報流通網의 構成, 國立中央圖書館의 指導機能 強化 및 資料의 補強, 公共圖書館의 增設과 積極的인 奉仕活動의 誘導, 서울大學校 圖書館의 先導의 기능 부여, 圖書館政策機能 強化 등을 主要 內容으로 하고 있다. 政府에서 이러한 調查報告書를 作成하였다는 것은 늦은감은 있으나 情報化 社會에 접 어든 세계적 추세에 우리도 뒤 따라 갈 수 있는 政策을 具現한다는 意味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現代社會는 資源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工業時代의 限界에 直面하게 됨으로써 工業社會를 토대로 하는 經濟理論은 그 기초가 흔들리기 始作하였고 이를 탈피하여 情報社會로 옮겨가고 있는 소위 情報化時代에 處해 있다. 따라서 國家發展의 原動力은 國民個個人的인 精神 姿勢確立과 產業社會에 對處하는 情報資料活用의 效率化에 있는 것인 바, 圖書館은 全世界 各處에서 不斷히 生産되고 있는 多樣한 정보자료의 蒐集 整理機關이요 이의 供給機關으로서 國家發展의 基礎的인 原動力을 제공해 주는 原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基幹施設인 것이다. 各國에서는 이러한 도서관의 기능을 중요시하여 이미 70年代初에 도서관政策에 대한 改革을 斷行한 바 있는데, 美國은 大統領直屬下에 國家도서관 및 情報科學委員會(NLISC)를 70年 7月 20日에 設置하였고 또한 國家資料蒐集計劃(NPAL)을 樹立 수많은 要員을 全世界에 파견하고 있다. 英國은 首相 直屬下에 圖書館開發委員會를 設置하여 圖書館政策은 主要한 國家施 策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72年 2月 27日에는 4個의 國立圖書館을 합병하여 英國國立도서관(BC)에 의한 全國도서관의 一元的 體制를 確立하였다. 그리고 各國에서는 中央行政 部署에 圖書館行政專擔부서를 두고 있는데, 가까운 日本은 文部省에 圖書館情報課를, 美國

은 保健教育福祉省內에 圖書館局을 設置하고 5個課를 두고 있으며 佛蘭西는 國民教育省內에 圖書館局을, 全世界에서 公共圖書館이 가장 發展되어 있는 덴마크는 文公部內에 圖書館廳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國家次元의 政策審議 機構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圖書館行政業務를 擔當할 部署마저 없고 다만 文教部 社會教育局 成人教育 係職員 한사람의 事務分掌의 한 項目에 포함되어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事實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政府가 얼마나 圖書館政策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일이며 깊히 反省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 圖書館實態를 대강 살펴 보기로 한다.

79年 現在 全國의 圖書館數는 國立中央도서관 1個 國會도서관 1個, 公共도서관 118個, 大學도서관 177個, 初中高等學校도서관 4,416個, 專門特殊도서관 139個 로 되어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 圖書館의 中心은 公共도서관이 되며, 公共도서관의 發展은 그 나라 全體도서관의 發展의 정도를 말해주는 尺度가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을 살펴 보면, 우선 設置數에서부터 問題가 된다. 全國 227個 市, 郡, 區에 반정도에 公共도서관이 設置되어 있는 셈인데 그 施設정도는 몇몇 도서관을 除外하고는 도서관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이 現實態이다. 아무튼 人口 32만 명에 도서관 1館뿐인데, 外國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덴마크가 5,147名, 필리핀이 10만명, 태국이 13만 명, 소련이 1,909名에 1個의 도서관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덴마크와 소련은 그만두고라도 우리의 비슷한 태국이나 필리핀보다도 우리는 3배가 넘는 奉仕人口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 公共도서관의 심한 落後現상을 말해 주고 있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 先進國의 수준에 따라가지는 못할 망정 GNP로 보아 人口 3만명에 1個의 公共도서관은 있어야 된다고 할 때 1천개의 公共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增設할 수는 없다는 치더라도 227個의 市, 郡, 區에 1館씩의 公共도서관을 設置

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배는 더 增設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은 建物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資料情報 提供活動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財政의 뒷받침이 持續되어야 하는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公共도서관은 1館當 藏書數가 平均 9,524卷이며 1館當 圖書購入費가 年平均 227,000원 꼴이 된다. 1년에 2,000원짜리 110卷의 책만을 살 수 있는 예산액이다. 現行 도서관法에 따르면 人口 15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1個當 基本장서 1,500권이상이 所藏되어야 하고 매년 500원 이상의 圖書를 增加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施設基準에 따르면 5倍以上은 늘려야 한다. 그런데 現行 도서관法은 1963年 10月 28日 公布되어 17年이 지나도록 단 한번도 改正된 사실이 없어 낡고 死文化된 法規나 다름없다. 이 法의 改正도 時急한 일이지만 이 法에 따른 施設基準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 公共도서관의 한심한 實情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公共도서관이 再修生이나 中高等學生들의 공부방 구실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나마 부족하여 자리하나를 차지하려고 새벽 5時부터 도서관마다 문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도서관을 育成해 보아야겠다는 뜻으로 政府에서 도서관 실태를 調査해 본 모양인데 그러한 뜻은 좋으나 이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이 없이 制度的인 補完에 그칠 경우 불필요한 行政節次만 늘어나 關係者들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어 도서관 育成이라고 하는 本來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圖書館을 國家發展의 터전으로 育成하고 市民의 文化 空間으로 만들자고 날마다 외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도서관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活用度가 없는 낡은 책의 保管所, 各種 受驗準備 入試準備生들의 공부방장소밖에 못되고 있다. 이것은 고전적인 後進性이라기 보다는 本來기능의 마비인 것이다.

도서관은 專門分野를 위한 資料情報와 市民의 生活 情報活用을 위한 奉仕 그리고 市民의 文化空間의 역할을 위한 환경을 여유있게 갖추어야 한다.

國立中央도서관이 있어도 그 기능 역할은 資料의 管理保存과 장소사용편의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書誌정보, 目錄카드, 資料索引, 全國圖書館相互間의 協力 등등 本來的 기능을 하여야 한다. 수백만권의 장서가 있는 大學도서관이 있다해도 共同活用の 기회가

막혀있다면 死藏에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全國도서관의 협력체제가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 또 公共도서관은 優秀圖書 및 良書의 심의추천의 기능까지도 담당해야 한다. 外國의 우수신간도서상 가운데 권위있는 것은 司書가 중심이 되어 선정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公共도서관은 독서회나 研究會의 主催者 역할도 해야 하며 최고의 文化商品을 다루는 공지의 지위에서 司書가 보람을 느끼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專門도서관이 없다. 文化, 科學, 歷史, 産業분야의 專門도서관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效率的으로 活用되어야 한다. 또 도서관에서는 녹음테이프 음반 등 비도서자료 등이 있어 公開 活用되어야 하고 기록영화 등도 貸與 活用될 수 있어야 한다. 科學전문, 歷史전문, 産業경제전문분야에는 제록스시설과 컴퓨터시설 등 도서관의 自動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쨌든 정부는 이번 기회에 圖書館法을 改正하여 國立中央도서관의 기능과 지위를 크게 높이고 예산이 없어서 도서관의 育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이 나오지 않도록 制度的장치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支援할 수 있도록 해야만 圖書館行政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이 헌책과 먼지만 가득차 있고 수험생들의 공부방구실밖에 할 수 없는 시설이 아니라 文化의 터전으로서 生活人의 市場으로서 산업인의 기술센터로서 새롭게 하여야만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도 지금까지의 勞動集約的인 産業구조에서 情報活用을 통한 技術集約的인 産業으로의 전환으로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것인 바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문화발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圖書館에 대한 적극적인 育成策을 강구해 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한사람씩 권한 책
만인을 깨우친다

정성모는 독서로
빛나는 내일을